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라던 대법원 일제 전범기업 재판은 3년 넘게 방치

강제동원 소송 2건 여전히 계류 중
미쓰비시重 등 배상 회피하는 사이
원고 5명 중 4명은 고령으로 사망
시민모임 '비뚤어진 정의' 비판
시민사회도 조희대 측각 사퇴 촉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변명을 내놓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비뚤어진 정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피해를 요구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3년 넘도록 방치하는 '지연된 정의'를 보이고 있어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역사 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는 '선택적 정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8일 현재 대법원에는 일제 강제동원 관련 2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데, 관련 재판이 지연되면서 소송을 냈던 원고 4명(김중곤·이동련·박해욱·김성주)은 고령으로 사망한 상태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제기한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허가명령(2022년 5월 접수),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특별현금화명령(2023년 1월 접수) 등이 계류중인데 여전히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표의 6만 쪽에 이르는 소송 서류는 이들 만에 읽었다는 대법관들이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고령의 할머니들 재판 서류는 뭐가 그렇게 읽기 힘들냐"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양 할머니의 경우,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6년만인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7년 넘게 배상을 회피하면서 압류명령, 특별허가명령 등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양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낸 원고 4명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령으로 사망해 결국 양 할머니 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양 할머니 또한 최근 3년째 요양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윤 정권이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이유로 대법원에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소송에 대한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윤 정권의 의견서에 동조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시민모임은 주장하고 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상식을 뛰어넘어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도 9일 만에 처리하는 대법원이 왜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은 3년씩이나 묵히고 있는냐"며 "대법원은 비뚤어진 정의로 역사 정의에 대한 재판을 직무 유기했으며,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대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정치개입으로 내몰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비상행동 또한 최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극우 내란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위한 정치 기획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의 상식을 넘어선 판결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몸으로 엉겨있는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 노골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내란 권력의 연장을 위해 발버둥치는 법비들과 내란 카르텔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일 "최근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접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려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의 한 파크골프장에서 이용객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파크골프의 계절... 어디로 가볼까

잔디 보호기간 지나 광주·전남 일제히 개장...이용객 몰리며 활기

시니어들 최고 인기운동으로

봄을 맞아 광주·전남 파크골프장이 시니어 골퍼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골프장 잔디 보호를 위한 휴식기를 끝내고 4월 말부터 파크골프장 문을 열면서 "이번 주엔 어디로 가볼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프장 나들이가 인기가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점 등으로 잘 지은 파크골프장을 찾아다니는 골퍼들만 연간 19만 명에 달했을 정도다.

광주·전남 지역 파크골프장은 모두 48곳(광주 10곳, 전남 38곳)으로, 이들 시설 대부분이 잔디 보호 기간이 마무리된 데 따라 4월 말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광주는 5개구 내 총 144개홀, 전남은 고흥군과 신안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총 74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갖추고 시니어 골퍼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일 문을 연 광주 무등산 파크골프장은 하루평균 150~160명이 찾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개장 첫 해부터 1만9000여명이 찾아오고, 2024년에도 2만3000여명이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2만5000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광주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도 2022년 3만5805명→2023년 4만8798명→2024년 5만3784명으로 방문객이 폭증했다.

화순은 압도적 규모로 인기가 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화순군 청풍면 화순흥수조절지 파크골

프장의 경우 하루 평균 400명이 찾는다. 지역 내 가장 많은 홀수(87홀)를 갖춰 지난해 11만 명이 다녀갔다. 화순 주민이면 2500원만 내면 하루 온 종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화순군은 지역 상품권 환급 정책을 연계, 이용료의 절반을 화순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며 골퍼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38곳 중 26곳은 전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담양군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등 지역 거주민에게만 무료로 개방되는 곳도 있지만, 외지인이라 해도 이용료는 1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 수준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에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둘러보며 산책, 친목까지 다질 수 있어 시니어층 사이에 최고 인기 운동으로 떠올랐다.

대부분이 9홀이지만 18홀, 36홀, 최대 87홀까지 다양하게 조성돼 새로운 골프장 체험을 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자체를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여러 개의 파크골프장을 갖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목포에만 8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됐고 광주시 동구는 최근 조선평대 내에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파크골프 시설 관계자는 "파크골프 붐이 일어나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시설관리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검찰, 제주항공 참사 허위사실 유포 14명 기소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 대응

검찰이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를 구속하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검찰청에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혐의 등이 적용됐다.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브 A씨는 불구속기소한 다른 유튜브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 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의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유가족 대표에 대해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했다'는 등의 허위 글 작성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지역 비하적 표현으로 유족을 모욕했다가 기소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의 경우 중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도 중전보다 50만~200만원씩 높은 액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8일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 하에 지내다가 9살에 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성과를 거둔 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

히 살아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증도의 지적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27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지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